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공홀의 그릇**

성경: 로마서 9장 22-26절

Tag: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
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
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9:22-26)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공홀의 그릇’이다.

종종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홀을 입은 그릇이다. 반면에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다. 그러나 이 두 그릇의 정체성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공홀의 그릇’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똑같은 진노의 대상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다. 그런데 ‘진노의 그릇’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신 것을 보니 버리긴 버려야 하는데 웬지 너무 아깝다는 느낌이 드신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저놈이 악하긴 악한데, 그래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대상이긴 한데, 막상 심판을 집행하려고 보니 너무 아까우신 것이다. 불쌍하기도 하고, 뭔가 시간을 끌면서 저 멸망해야 할 놈이 흑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을까, 저놈이 저러 된 것은 4살 때 입은 상처 때문에 이상한 버릇이 생겨났기 때문인데 살다보면 자신도 스스로 반성하며 그 악한 버릇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수를 써 보신다. 전도하는 사람도 보내 보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심정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다리신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 먹을까, 행동을 고쳐 먹을까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사형제도 찬성론자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어떤 자들은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현재 무분별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이 사형에 버금가는, 그러면서도 충분히 죄의 댓가를 치루는 형집행 제도라 여기고, 사형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부작용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묻지마 살인이 유행이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지어 그는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깡패는 깡패가 심판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다. 그게 사람의 정체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그릇’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되도록 그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시는 것을 뒤로 미루신다.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들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악을 모른척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웅 다웅 살아간다. 누군가는 가해자로, 누군가는 피해자로. 피해자가 항상 피해만 입고 사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 이면서 가해자로 살아간다. 여기에서는 갑질을 당하고 저기에서는 갑질을 한다. 보기에 천사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기도 한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아야 하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지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큰 죄는 저지르지 않고, 가끔가다 작은 죄를 짓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거나 범칙금 정도 납부 하면서 살아간다.

또는 어쩌다 한번 큰 죄를 저지르고 평상시에는 자잘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번 죄악을 계획하고 악한 짓을 통해서 세상을 농락하는 자가 있다.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아무리 철저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공의 시스템은 너무 복잡하다. 아버지의 죄를 자손 3-4대까지 묻기 때문에 어떤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 닥치는지 알 길이 없다. 개인의 능력도 천차만별이고, 게다가 사회제도 또한 변수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유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무능하고 게으르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거나 하지도 않는다.(대개는 그렇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람 개인의 판단은 오리무중이다. 또 각종 율법주의 덕분에, 엉뚱한 기준에 엉뚱한 판단에 엉뚱한 선택이 난무하다 보니, 도데체 이 사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기준에 의해서 FM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

공산당은 아예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든, 선전 선동이든, 내로남불이든, 온갖 악하고 파렴치한 짓이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내 지르는 것이 혁명적 행위라고 믿고 있다. 그들에게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양심이나 도덕도 혁명과업의 수단일 뿐이고, 정신세계란 육체에 종속되어 있는 보조기관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공산당이 하는 짓을 버젓이 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 인물은 내로남불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체를 숨긴 공

산당원들에게 모범적인 것이며, 혁명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며, 그래서 응원하고 헌금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반면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동안에 아무런 잘못 없이 참사를 당하는 선량한 사람들도 많다. 그들의 죽음은 개죽음인가? (대표적인 인물은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사랑과 관용과 심판과 재앙이 뒤섞여 있도록 방관하시는 것일까? 정말 악한 자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억울하고 무고한 자들은 왜 천재지변을 통해서 죽어가는가?

안타깝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점이 영생에 찍혀 있고, 시간이 존재하는 3차원 세계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계다.

우리로서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도 마련하고, 자식들도 여의고, 노후 자금도 마련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애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지만,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 아닌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은 더 중요한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정작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봉변을 당하여 영생으로 넘어가더라도 최후의 심판은 모면해야 되지 않겠는가?

짧은 인생을 위해서는 모질고 긴 세월이 필요하지만, 영생을 위해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영생을 대비할 수 있다. 비용도 노력도 그리 크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짧은 인생이나마 보람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그릇들이다. 누가 긍휼의 그릇인가?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긍휼의 그릇이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긍휼의 그릇이다.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긍휼의 그릇이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이다.

-운명론은 하나님께 맞지 않다.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누구든지 악인이 될 수도,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가 여러 차례 나쁜일을 당하였지만, 그는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가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 스스로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다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다 구원 받는 것 아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다 심판 받는 것 아니다. 선한사람도 스스로의 의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 악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진다.

-악인이 무고한 자를 죽였다고 치자. 죽임을 당한 자는 심판 받은 것일까?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알 수 없다. 만약 그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의 계산은 이생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하나님의 정의는 아직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죄인들의 구원이다. 예정된 구원일지라도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채 한 평생을 지낼

수도 있다. 그가 만약 생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믿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공휼을 입지 못하고 산 셈이니 억울한 일이지 않는가?

-만약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었다면, 결국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가 공휼의 그릇이었어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예정을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예약을 스스로 취소한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강제로 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24 이 그릇(공휼의 그릇)은 우리를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9:22-26)

우리는 이미 공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공휼의 그릇으로서 아직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공휼의 그릇으로 여겨주시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공휼을 입지 못한 자들도 있으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우리는 무너져 가는 가운데 구출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공활을 입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